

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참의원 외무위원회

○ 일시: 1992년 2월 27일(목) 오후 1시 1분 개회

○ 발언자:

- 다치키 히로시(立木洋) 의원(정치가, 일본공산당 소속 참의원 의원,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일본공산당 명예임원)
-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국무대신(세무사, 정치가, 중의원 의원, 대장성·농림수산성·후생성 장관, 부총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13968X00119920227&spkNum=142¤t=43>

○ 해제(개요 및 특징)

다치키 의원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종군위안부에게 한 행위는 다른 국가나 민족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결국 이는 식민지 지배라는 문제가 그 근저에 있는 것이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충분한 반성을 촉구함. 이에 대해 와타나베 국무대신은 전쟁이 그 근본 원인임을 인정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는 누차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다고 답변함.

○ 주요 내용 번역

- ▷ 다치키 “외무대신, 조선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대부분 논의되었기에 문제점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조선의 **종군위안부** 문제라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배경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까지 관여하여 이렇게 화가 치미는 사태가 일어난 그 원인이랄까 배경이랄까, 대신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와타나베 국무대신 “전쟁이란 게 참으로 비인도적인 죄악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전쟁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 다치키 “그런 전쟁 즉 침략전쟁이란 것이 배경에 있다는 점은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그런 침략전쟁이 설사 있었다 해도, 어느 나라의 민족도 일본이 **종군위안부**에게 한 일 같은 것은 없었지요. 즉 식민지 지배라는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이 결부되어 조선의 **종군위안부**라는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닐까요? 이에 대해 대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와타나베 국무대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도, 당시의 조선인도, 타이완인도 유감스럽게도 기록에 있다고.”

▷ 다치키 “아니, 그것이 결국 다른 민족을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중군위안부**로 삼는 상태가 가능했다는 것은 식민지 지배와 결부되어있는 것은 아니냐는 게 질문입니다.”

▷ 와타나베 국무대신 “당시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있어 일본인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 일본 이름으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요컨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중략)

▷ 다치키 “결국 대신,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1910년에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졌고, 그 조선총독부라는 것은 전부 일본 육해군의 대장이 맡은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발언 기록을 보아도, 조선인은 복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라는 거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장이 진술한 것도 있고, 그 후에 이른바 창씨개명 문제에서 징병제까지 전부 조선 민족으로서의 주권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군위안부** 문제라는 것도 나온 것이지요.

따라서 식민지 지배라는 것과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역시 근저에 있고, 이에 관해,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해온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조선민족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와타나베 국무대신 “정부로서는 지금까지도 조선반도의 모든 사람에게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누차 표명해왔습니다.”